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121 편

3 월 8 일 2020 년

시작

낙관주의자와 염세주의의 대화

낙관주의자 말하기를, “오늘 해가 맑고 밝은 좋은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였더니, 염세주의자의 말이, “그렇긴 한데, 계속 해가 짙짙 내리쬐는 날이 계속되면,
잔디들이 다 타 말라버릴겁니다.”

이들이 지난 다음에, 낙관주의자가 말하기를, “야, 비가 오니까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했더니, 염세주의자의 말이, “그렇긴 한데, 이 비가 계속 오게 되면, 정원이 다
망가질겁니다.”

다음 날, 이 두사람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낙관주의자가 좋은 사냥개를 한 마리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개가 대단한 사냥견입니다” 염세주의자의 말이, “내
눈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개처럼 보입니다.” 오리 떼가 날아가고 있어서, 낙관주의
자가 총을 쏘아 한 마리가 호수 중간에 떨어졌습니다. 개에게 신호를 주니까, 개가 잼싸게
물 위로 호수 한가운데로 달려 들어가서 오리를 입에 물고 주인에게 나왔습니다.
“대단하지요? 참 굉장한 사냥견이에요.” 염세주의자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개라고. 수영을 못하네요.”

낙관적이십니까? 비관적이십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낙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비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낙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시편 121 편의 시편 기자는 힘차게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분명히 낙관주의 자임에 분명합니다.

시편 121 편은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21 세기를 사는 현대 순례자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됨을 몸소 경험하고 확신하게 된 기자는, 소리를 더욱 높여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 121: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네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너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6 번이나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키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지키십니까?

귀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아름다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부족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합니다.

“좀 별 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하나님께는 별 볼일이 있는 아름다운 생명입니다.

“제가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네 죄를 용서한다 너는 용서받은 나의 자녀이다”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킴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지킴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찬송이 끊임없이 터져 나옵니다. 캐나다 교인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감사 찬송 올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삶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음 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심방 할 때 마다, 제가 하는 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축복기도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함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함께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 6:24-26)

힘드시죠? 걱정 근심이 많으시죠? 문제가 많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순례의 길을 가면서, 매일 매일, 감사의 찬송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며, 힘차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순례의 길 정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성지 순례 갔다 온지 거의 30 년이 다가 옵니다. 가 보니까, 그 곳은 사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겁습니다. 오랫동안 낮에 걸으며는, 일사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가운 햇볕으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네 그늘이 된다고 노래하였습니다.

밤의 달은 어떻습니까? 밤 하늘의 달을 보는 것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연인이 달빛을 받으면서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달빛이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달 빛을 직접 쏘이게 되면, 병이 나고, 더 나아가서는 미치게도 한다고 여겼습니다. Lunatic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친사람이라는 뜻이지요. Lunatic 이 단어하고, 달이 라는 뜻의 Lunar 하고 비슷하지요? 밤의 달이 사람을 미치게하는 괴력이 있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네 그늘이 된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은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정마다 문제입니다.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 정신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없어지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시련이 있고, 고통의 시간도 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벅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하게 되고,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절망하기 까지 합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어깨 펴고, 고개 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매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힘주고, 지혜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마지막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 절 4 절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24 시간 내내 깨어 계십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을 24 시간 깨어 돌보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24/7 시시각각으로 매 순간, 밤낮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차 세계 대전 때에, 독일 군이 영국의 런던을 매일 밤 폭격하였다고 합니다. 도시 한 부분이 크게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친 사람들을 구하려고, 또 이미 죽은 사람들을 찾으려고, 또 행방불명인 사람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안 보여서 사방 팔방을 헤메면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할머니가 사시는 작은 방에서 아기처럼 새근 새근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 할머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폭격을 받고 있는 이 밤 중에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할머니 대답하시기를, “성경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밤새도록 둘이 같이 깨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잠을 자기로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할머니는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웨체스터 중앙 교회에서 목회 할 때에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 때, 우연히 미국 대통령, 조지 부쉬 대통령의 일과 시간표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대통령의 일과 소식을 들었습니다. 10 시에 자고, 5 시에 기상. 그리고 운동하면서 신문을 본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100 명도 안되는 교인들을 섬긴다고 하는 나는, 잠도 제대로 못자고 늘 안절 부절인데, 미국 대통령이 2 억이 넘는 국민들을 섬기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은 미국만 챙기나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들도 관여해야하는 자리 아닙니까?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잠을 7 시간씩 잔다? 와우..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그 때 만난 한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 기자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십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겠는데... 큰 일 작은 일 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겠습니다.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의 대답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낮에는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잠잘 시간이 되며는, “하나님,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즐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꼭 잡니다.” 즐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계시니, 아무 염려 없이 꼭 잠을 자고, 그리고 맡겨진 일을 기쁘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일년 내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늘 깨어, 우리의 지켜보아 주시는 하나님. 참 멋있고 대단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을 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이 인생길을 낙관적으로 나아갑니다.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비관하지 않습니다. 24 시간 매시간, 매일, 즐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 찬송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면서, 시편 121 편 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멘.